

청년의 패배감, 속박감,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된 매개효과: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중심으로*

박 효 은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 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본 연구는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에 근거하여,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 사회적 문제해결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청년 828명을 대상으로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문제해결(긍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속박감이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에 해당하는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은 속박감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셋째,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을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이 조절하였다. 긍정적 문제지향과 여러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은 패배감이 낮을 때만 속박감을 완화 또는 악화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살생각,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 청년, 패배감, 속박감, 사회적 문제해결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89682).

본 논문은 박효은(2024)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1112호,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의하면 2021년 20대 자살자 수는 1,579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3.9%의 증가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이와 같은 추세로 자살은 20대의 사망원인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자살시도자 또한 20대가 1.3%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 자살(Suicide)이란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이혜선 외, 2008)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계획(Suicide plan), 자살시도(Suicide attempt)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이다(Cole et al., 1992). 즉, 자살생각은 자살시도 및 행동에 앞선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살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수진, 김종남, 2018; 이현지, 김명희, 2007; Reynolds, 1991; Miranda et al., 2013). 따라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이 발생하고 악화하는 기제를 이해하여 자살생각을 완화 및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자살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20대 청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김정진, 2009; 박은미, 정태연, 2017; 이지원 외, 2014). 그와 동시에 20대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인 독립 및 직업 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이다(강지원 외, 2023). 경제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낮은

고용 지위는 청년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아, 2019; 전소담 외, 2020; 정용, 구훈정, 2019). 즉, 20대 청년의 높은 자살 및 자살시도율은 대학이나 직장 등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이들의 자살은 젊은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인적 자원인 청년의 자살이 야기하는 부정적 과급 효과를 고려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현재까지의 자살 연구는 주로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20대 청년의 구체적인 자살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권미경 외, 2019; 최바울 외, 2011). 청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결과가 20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김명미, 손준호, 2019; 이상은 외, 2021; 이윤진, 유성은,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20대 청년들만이 나타내는 자살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자살이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에 기인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자살의 원인이나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등장하였다. 자살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크게 정신역동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 대인관계 심리모형 등이 있다.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전달 수 없는 고통, 공격적인 충동, 타인에 대한 잘못된 동일시 등으로 설명하며, 자살을 우울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Freud, 1917). 이와 달리 인지행동적 접근에서는 자신과 타인, 미래에 대한

역기능적인 인지나 절망감이 자살생각 및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Berman et al., 2009; Pereira et al., 2010). 또한, 대인관계 심리모형은 자살을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실행력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Joiner, 2005; Joiner Jr, et al., 2009). 이상에서 설명한 이론들은 자살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구, 인지, 사회적 영향과 같은 특정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살은 기질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행동이므로 영향요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O'Connor, 2011).

O'Connor(2011)는 자살 행동을 맥락적,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며, 자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이론을 통합한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IMV])을 제안하였다. O'Connor의 IMV는 자살 현상의 특정 영역에 대한 이해에 강점을 지닌 기존 이론들의 설명기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모형은 동기 전 단계, 동기 단계, 의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전 단계(Pre-motivational Phase)에서는 스트레스 취약성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취약성이나 주요 삶의 사건, 환경적 요인 등이 개인의 자살생각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동기 단계(Motivation Phase)에서는 자살 행동에 대한 동기나 사고가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다. 의지 단계(Volitional Phase)에서는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중 동기 단계는 IMV의 주축으로, Williams

와 Pollock(2001)의 고통호소모델을 기반으로 자살생각이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자원을 얻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환경에서 패배감을 느끼고, 패배감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속박감에 사로잡히며, 이는 자살생각을 예측한다고 보았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이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설환, 손정락, 2018; Dhingra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 Panagioti et al., 2012). 또한 IMV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각각의 경로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을 제안한다. 그 중 패배감에서 속박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반추, 대처 능력, 기억 편향 등과 같은 개인적인 조절변인이 영향을 미치며, 속박감에서 자살생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사회적지지,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미래에 대한 생각, 목표, 사회적 규범 등 동기적 조절변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O'Connor & Kirtley, 2018).

이처럼 다양한 조절변수를 제안하고 있지만, O'Connor의 IMV에서 제시한 조절효과들은 아직 국내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IMV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지와 배성우(2017)의 연구에서는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의 동기 이전 단계부터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였으나 각 경로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는 연구되지 않았다. 박정은과 권해수(2021)의 연구에서는 동기단계와 함께 동기적 조절변수로 좌절된 소속감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유현 외(2022)의 연구에서는 정서도식이라는 새로운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패배감이 속박감 또는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이어 통합적 동기-의지모형의 동기 단계인 패배감, 속박감, 자살생각의 경로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아직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이 검증된 바 없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하위 5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각 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찾고 실제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김홍석 외, 2013). 즉,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전개되는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으로 사회적인 상황이 강조된다(D'Zurila & Goldfried, 1971). 문제해결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으로 구분되고,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합리적 문제해결, 충동/부주의, 회피로 구분되어 사회적 문제해결은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D'Zurila et al., 1999). 먼저 긍정적 문제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 [PPO])은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말한다. 부정적 문제지향(Negative Problem Orientation [NPO])은 스스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과 관련되며, 역기능적인 인지, 정서적 과정을 나타낸다. 합리적 문제해결(Rational Problem Solving [RPS])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충동/부주의 스타일(Impulsive/Careless Style [ICS])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

지만, 충동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패턴을 나타내는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회피 스타일(Avoidance Style [AS])은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오랫동안 문제를 미루고 회피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사회적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요인은 실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긍정적 문제해결 방식과 부정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긍정적 문제지향과 합리적 문제해결은 긍정적 문제해결 방식에 해당되고,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스타일, 회피 스타일은 부정적 문제해결 방식에 해당된다.

Jahoda(1953, 1958)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언급하며, 부족한 문제해결능력은 정신병리나 심리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중 부정적 문제지향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inecke et al., 2001).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충동적인 문제해결 스타일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며, 자살을 시도한 노인의 경우 부정적인 문제지향성과 충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ibbs et al., 2009; Wang et al., 202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살의 관련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이 패배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방식 중 회피나 부주의한 태도 등 부적응적인 해결방식은 문제해결을 방해하게 됨으로써 패배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ey et al., 1996; Dugas

et al., 1998). 이에 더해 사회적 문제해결은 속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onner와 Rich(198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이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절망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alouff et al., 2007; Townsend et al., 2001).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속박감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절망감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응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은 속박감을 줄여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O'Connor은 자살생각 전 패배감과 속박감이 선행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를 사회적 문제해결이 조절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은 해결방식에 따라 패배감과 속박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Bonner & Rich, 1988; Davey et al., 1996; Dugas et al., 1998; Malouff et al., 2007; Townsend et al., 2001)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5

가지 사회적 문제해결방식이 조절변수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특히 긍정적인 해결방식과 부정적인 해결방식이 둘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IMV의 동기 단계인 패배감이 속박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각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확인하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패배감이 자살생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증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20대 청년의 자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패배감이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1. 긍정적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긍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은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2.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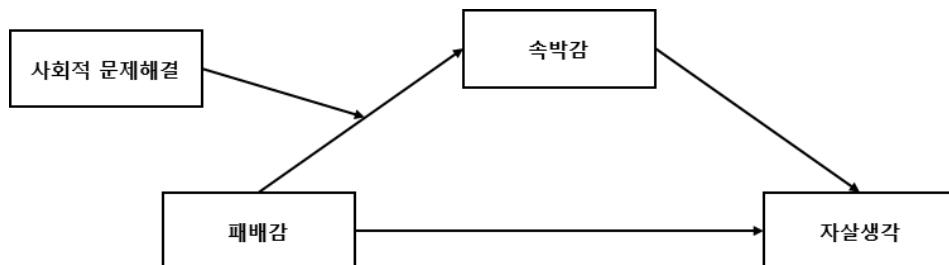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모형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은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긍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에 의해 조절되는가?

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살이론인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에서 수집된 자료로 연구소의 허가를 받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고, 국내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설문 기간은 2023년 03월 30일부터 05월 15일까지로 약 6주간 진행되었다. 해당 설문에는 총 828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온라인 설문 기관을 통해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하였다. 본 설문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505명(61.0%), 남성이 323명(39.0%)으로 나타났으며, 만 나이는 29세가 171명(20.7%), 28세가 139명(16.8%), 27세가 120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인천 267명(32.2%), 서울 229명(27.7%), 경상 162명(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거주상태는 양부모 거주 575명(69.4%), 한부모 거주 157명(19.0%), 기타 85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치료경험은 있음이 214명(25.8%), 없음이 614명(74.2%)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상담 경험은 있음이 376명(45.4%), 없음이 452명(54.6%)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 및 장애는 있음이 161명(19.4%), 없음이 667명(80.6%)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있음이 345명(41.7%), 없음이 483명(58.3%)으로 나타났으며, 자살계획은 있음이 11명(13.4%), 없음이 717명(86.6%)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시도는 있음이 70명(8.5%), 없음이 758명(91.5%)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자살사고 속성 척도(Suicidal Ideation

Attributes Scale [SIDAS])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자살생각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Van Spijker 외(2014)가 개발한 SIDAS를 이덕희 외(2023)가 국내 타당화 한 자살사고 속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SIDAS는 총 5문항으로 단일요인 구조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문제를 보이는 2번 문항을 제외하여 총 4문항으로 자살생각의 심각도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11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0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Van Spijker 외(2014)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값(Cronbach's α)은 .91, 이덕희 외(2023)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828)

변인		n	%
성별	남성	323	39.0
	여성	505	61.0
만 나이	20	12	1.4
	21	22	2.7
	22	41	5.0
	23	55	6.6
	24	68	8.2
	25	90	10.9
	26	110	13.3
	27	120	14.5
	28	139	16.8
	29	171	20.7
거주지역	서울	229	27.7
	경기/인천	267	32.2
	경상(부산, 대구, 울산 포함)	162	19.6
	충청(대전, 세종 포함)	76	9.2
	전라(광주 포함)	58	7.0
	강원	22	2.7
	제주	14	1.7
	양부모 거주	575	69.4
	한부모 거주(편부/편모)	157	19.0
	조부모 거주	11	1.3
현 거주상태	기타	85	10.3
	있음	214	25.8
	없음	614	74.2
	없음	376	45.4
심리상담 경험	없음	452	54.6
	있음	161	19.4
만성질환 및 장애	없음	667	80.6
	있음	345	41.7
자살생각	없음	483	58.3
	있음	111	13.4
자살계획	없음	717	86.6
	있음	70	8.5
자살시도	없음	758	91.5

패배감 척도(Defeat Scale [DS])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패배감을 측정하기 위해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DS를 이소영 외(2015)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패배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Defeat Scale [K-DS])를 사용하였다. K-DS는 이소영 외(2015)의 연구에서 4문항이 삭제되어 총 12문항으로 단일요인 구조를 지닌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패배감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 이소영 외(2015)는 .92였으며, 본 연구는 .98로 나타났다.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속박감을 측정하기 위해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ES를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타당화한 한국판 속박감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Entrapment Scale [K-ES])를 사용하였다. K-ES는 총 16문항으로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Gilbert와 Allan(1998)의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 외적 속박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 이종선과 조현주(2012)는 내적 속박감 .89, 외적 속박감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은 .93, 외적 속박감은 .95, 전체척도 .97로 나타났다.

단축형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Short Form [SPSI-R-SF])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측정하기 위해 D'Zurila 외(1999)가 검사

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위하여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의 52문항 중 25문항을 추출하여 개발하고 김홍석 외(2013)가 국내 타당화한 SPSI-R-SF를 사용하였다. SPSI-R-SF는 김홍석 외(2013)의 연구에서 1문항이 삭제되어 총 24문항으로 PPO, NPO, RPS, ICS, AS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긍정적 측면인 PPO와 RPS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 측면인 NPO, ICS, AS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제해결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D'Zurilla 외(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PPO .70, NPO .80, RPS .73, ICS .65, AS .80, 김홍석 외(2013)에서 신뢰도 계수는 PPO .73, NPO .80, RPS .75, ICS .65, AS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PPO .84, NPO .87, RPS .82, ICS .77, AS .8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정선흐와 서동기(2016)와 Muller 외(2005)가 제안한 검증 방법을 따랐다. 조절된 매개모형은 매개모형과 조절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므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uller 외(2005)의 제안을 따라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의 조절효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세째,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Hayes, 2013). 넷째,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였다(Hayes, 2013). 이 과정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을 경우,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각 변인의 평균으로부터 $\pm 1SD$ 인 지점을 연결하여 도식화함으로써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을 활용하였다(Hayes, 2015). 이때,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절변인이 조절하는 정도를 측정한 조절된 매개효과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를 확인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의 평균과 평균 $\pm 1SD$ 인 지점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와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 2 미만, 첨도는 ± 7 미만 일 경우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서 왜도의 절댓값은 .92 이하이며, 첨도의 절댓값은 1.30 이하로 나타나 해당 분포가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통계를 실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문제지향과 충동/부주의 간의 관계, 합리적 해결기술과 부정적 문제지향 간의 관계만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패배감은 긍정적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긍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 속박감, 자살생각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긍정적 문제지향은 합리적 해결기술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문제지향, 회피 스타일, 속박감, 자살생각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합리적 해결기술은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 속박감,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문제지향은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 속박감,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부주의는 회피 스타일, 속박감,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회피 스타일은 속박감,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속박감도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패배감과 속박감 간의 관계가 높은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가장 높은 VIF가 6.41로 10을 넘지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828$)

변인	1	2-1	2-2	2-3	2-4	2-5	3	4
1. 패배감	-							
2-1. 긍정적 문제지향(PRO)	-.446***	-						
2-2. 합리적 해결기술(RPS)	-.224***	.660***	-					
2-3. 부정적 문제지향(NPO)	.607***	-.272***	.029	-				
2-4. 충동/부주의(ICS)	.410***	-.039	-.086*	.522***	-			
2-5. 회피 스타일(AS)	.502***	-.261***	-.080*	.686***	.656***	-		
3. 속박감	.912***	-.401***	-.185***	.611***	.437***	.511***	-	
4. 자살생각	.626***	-.303***	-.203***	.327***	.285***	.317***	.615***	-
평균	28.30	16.44	16.90	15.30	10.81	14.27	39.20	8.31
표준편차	13.53	3.78	3.49	4.37	3.06	4.21	16.00	10.12
왜도	0.36	-0.54	-0.71	-0.21	0.06	-0.21	0.18	0.92
첨도	-0.92	0.53	1.30	-0.79	0.06	-0.21	-0.87	-0.46
VIF	6.41	6.25	2.53	2.56	2.12	2.09	2.56	-

* $p<.05$, *** $p<.001$.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가정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며, 조절변인이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모형을 의미한다(Muller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독립변인인 패배감과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 긍정적 문제지향 및 합리적 해결기술,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 모두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이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 분석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패배감은 속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912$, $p<.001$),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7$, $p<.001$). 속박감도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영향($\beta=.262$, $p<.001$)이 확인되었다. 매개

표 3.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 ($N=828$)

경로	B	β	SE	t	R^2	F
패배감 → 속박감	1.079	.912	.017	64.074***	.833	4105.431***
패배감 → 자살생각	.289	.387	.049	5.883***	.403	278.756***
속박감 → 자살생각	.166	.262	.042	3.991***		
					95% 신뢰구간	
Bootstrapping(5,000)		B	SE		$LLCI$	$ULCI$
		.139	.042		.057	.222

*** $p<.001$.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B=.139$, $LLCI=.057$, $ULCI=.222$)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속박감은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효과 분석

패배감과 속박감 사이에서 사회적 문제해결(긍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긍정적 문제지향의 경우에는 패배감과 긍정적 문제지향의 상호작용항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013$, $p<.001$), 설명력이 약 0.2% 증가하여 긍정적 문제지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Delta R^2=.002$, $p<.001$). 조절효과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긍정적 문제지향의 세 집단(-1SD, M , $+1SD$) 모두에서 패배감이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특히 긍정적 문제지향 수준이 낮은 집단($B=1.043$)에 비해 높은 집단($B=1.137$)일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문제지향의 수준에 따른 기울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2를 보면, 긍정적 문제지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 패배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가장 낮은 속박감을 보이지만 패배감이 높아지면 긍정적 문제지향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속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리적 해결기술의 경우는 패배감과 합리적 해결기술의 상호작용항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B=.002$, $p=.645$). 즉, 패배감이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 해결기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정적 문제지향의 경우는 패배감과 부정적 문제지향의 상호작용항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017$, $p<.001$), 설명력이 약 0.9% 증가하여 부정적 문제지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4.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효과 (N=828)

	비표준화 계수		<i>t</i>	<i>R</i> ²	ΔR^2
	<i>B</i>	<i>SE</i>			
패배감	1.079	.017	64.074***		
긍정적 문제지향	.036	.067	.527	.833	-
패배감 × 긍정적 문제지향	.013	.004	3.346***	.835	.002***
패배감	1.079	.017	64.074***		
합리적 해결기술	.097	.067	1.455	.833	-
패배감 × 합리적 해결기술	.002	.004	.461	.833	.000
패배감	1.079	.017	64.074***		
부정적 문제지향	.331	.065	5.122***	.833	-
패배감 × 부정적 문제지향	-.017	.003	-4.836***	.842	.009***
패배감	1.079	.017	64.074***		
충동/부주의	.393	.081	4.875***	.833	-
패배감 × 충동/부주의	-.011	.005	-2.302*	.838	.005***
패배감	1.079	.017	64.074***		
회피 스타일	.272	.062	4.401***	.833	-
패배감 × 회피 스타일	-.012	.004	-3.356***	.839	.006***

p*<.05, *p*<.01, ****p*<.001.

표 5. 사회적 문제해결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i>B</i>	<i>SE</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긍정적 문제지향	-1SD	1.043	.022	.999 1.086
	<i>M</i>	1.090	.019	1.053 1.127
	+1SD	1.137	.025	1.089 1.186
부정적 문제지향	-1SD	1.118	.030	1.059 1.176
	<i>M</i>	1.045	.022	1.002 1.087
	+1SD	.971	.022	.927 1.015
충동/부주의	-1SD	1.083	.025	1.033 1.133
	<i>M</i>	1.048	.018	1.012 1.084
	+1SD	1.013	.022	.969 1.057
회피 스타일	-1SD	1.102	.027	1.048 1.156
	<i>M</i>	1.050	.020	1.012 1.088
	+1SD	.998	.022	.954 1.042

****p*<.001.

($\Delta R^2=.009, p<.001$). 구체적인 조절효과 형태를 확인하고자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는 표 5와 같다. 그 결과 부정적 문제지향의 세 집단(-1SD, M, +1SD) 모두에서 패배감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부정적 문제지향 수준이 높은 집단($B=.971$)에 비해 낮은 집단($B=1.118$) 일수록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3을 보면, 부정적 문제지향이 낮은 집단의 경우 패배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가장 낮은 속박감을 보이지만 패배감이 높아지면 부정적 문제지향의 수준과 관계없이 속박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넷째, 충동/부주의의 경우는 패배감과 충동/부주의의 상호작용항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11, p<.05$), 설명력이 약 0.5% 증가하여 충동/부주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Delta R^2=.005, p<.001$). 조절효과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5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충동/부주의의 세 집단(-1SD, M, +1SD) 모두에서 패배감이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동/부주의 수준이 높은 집단($B=1.013$)에 비해 낮은 집단($B=1.083$) 일수록 기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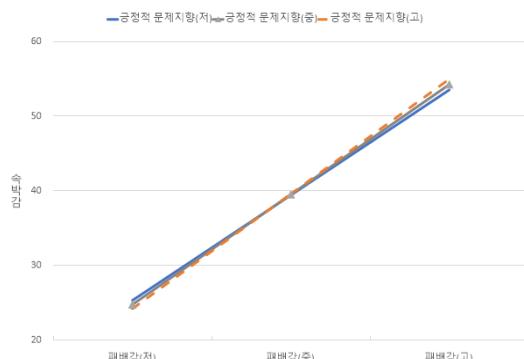


그림 2. 긍정적 문제지향의 조절효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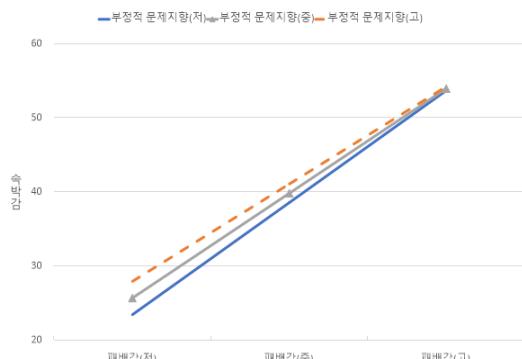


그림 3. 부정적 문제지향의 조절효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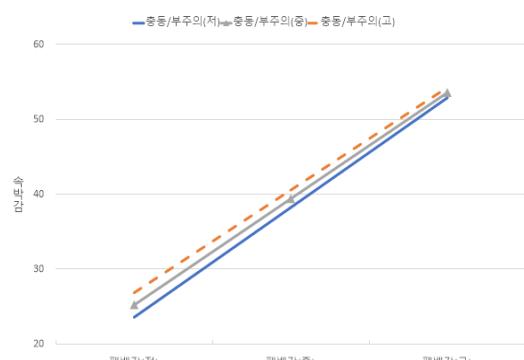


그림 4. 충동/부주의의 조절효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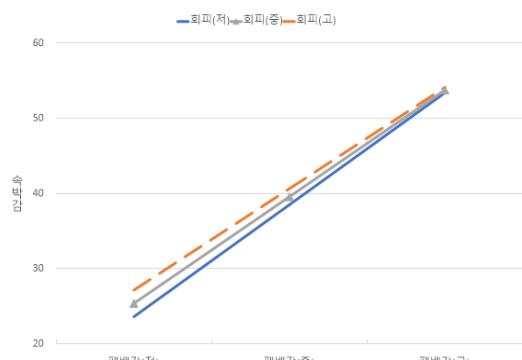


그림 5. 회피 스타일의 조절효과 그래프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충동/부주의의 수준에 따른 기울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4를 보면, 충동/부주의가 낮은 집단의 경우 패배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가장 낮은 속박감을 보이지만 패배감이 높아지면 충동/부주의의 수준과 관계없이 속박감의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회피 스타일의 경우, 패배감과 회피 스타일의 상호작용항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12$, $p<.001$), 설명력이 약 0.6% 증가하여 회피 스타일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Delta R^2=.006$, $p<.001$).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회피 스타일의 세 집단(-1SD, M, +1SD) 모두에서 패배감이 속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회피 수준이 높은 집단($B=.998$)에 비해 낮은 집단($B=1.102$) 일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5를 보면, 회피 스타일이 낮은 집단의 경우 패배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가장 낮은 속박감을 보이지만 패배감이 높아지면 회피 수준과 관계없이 속박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배감, 속박감,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Hayes(2015)의 Process macro(Model 7)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패배감과 긍정적 문제지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속박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013$, $p<.001$), 속박감은 자살 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66$, $p<.01$), 조절된 매개모형의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Hayes(2013)가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Index=.002$, $LLCI=.001$, $ULCI=.004$). 이를 통해 속박감을 매개로 패배감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긍정적 문제지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패배감과 부정적 문제지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속박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017$, $p<.001$), 속박감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66$, $p<.01$), 조절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Index=-.003$, $LLCI=-.005$, $ULCI=-.001$). 이는 속박감을 매개로 패배감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부정적 문제지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패배감과 충동/부주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속박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012$, $p<.05$), 속박감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66$, $p<.01$). 더불어 조절된 매개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Index=-.002$, $LLCI=-.004$, $ULCI=-.000$). 이를 통해 속박감을 매개로 패배감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충동/부주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패배감과 회피 스타일의 상호작용 효과는 속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B=-.012$, $p<.001$), 속박감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B=.166$, $p<.01$). 동시에 조절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Index=-.002$, $LLCI=-.004$, $ULCI=-.001$), 속박감을 매개로 패배감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회피 스타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 및 방향을 검

표 6. 사회적 문제해결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N=828)

종속변인: 속박감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패배감	.884	.063	14.110***	.761	1.006
긍정적 문제지향	-.334	.129	-2.584**	-.587	-.080
패배감 × 긍정적 문제지향	.013	.004	3.346***	.005	.020
패배감	1.302	.063	20.691***	1.178	1.425
부정적 문제지향	.763	.110	6.953**	.548	.979
패배감 × 부정적 문제지향	-.017	.004	-4.836***	-.024	-.010
패배감	1.171	.059	19.846***	1.056	1.288
충동/부주의	.705	.158	4.472***	.396	1.014
패배감 × 충동/부주의	-.011	.005	-2.302*	-.021	-.002
패배감	1.227	.060	20.485***	1.109	1.345
회피 스타일	.605	.117	5.189***	.376	.833
패배감 × 회피 스타일	-.012	.004	-3.357***	-.020	-.005
종속변인: 자살생각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패배감	.289	.049	5.883***	.193	.386
속박감	.166	.042	3.991***	.084	.247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긍정적 문제지향	.002	.001		.001	.004
부정적 문제지향	-.003	.001		-.005	-.001
충동/부주의	-.002	.001		-.004	-.0003
회피 스타일	-.002	.001		-.004	-.001

* $p<.05$, ** $p<.01$, *** $p<.001$

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는 표 7과 같다.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 값이 평균- $1SD$, 평균, 평균+ $1SD$ 일 때 하한값과 상한값

표 7.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간접효과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하한값	상한값
긍정적 문제지향	-1SD	.173	.045	.088	.267
	M	.181	.047	.092	.280
	+1SD	.189	.049	.096	.291
부정적 문제지향	-1SD	.185	.048	.094	.278
	M	.173	.044	.088	.260
	+1SD	.161	.042	.081	.243
충동/부주의	-1SD	.180	.046	.089	.271
	M	.174	.045	.086	.261
	+1SD	.168	.044	.083	.253
회피 스타일	-1SD	.183	.047	.089	.277
	M	.174	.045	.085	.266
	+1SD	.165	.043	.081	.254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든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수준에 따라 간접효과 크기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긍정적 문제지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졌으며, 이는 긍정적 문제지향이 높으면 패배감이 낮을 때는 속박감을 낮추지만 패배감이 높아질수록 속박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높아진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정적 문제지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문제지향이 높은 집단은 패배감이 낮을 때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속박감을 경험하지만, 패배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문제지향의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부

정적 문제지향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패배감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변화가 작고, 이에 따라 자살생각의 변화 폭이 줄어듦을 나타낸다. 셋째, 충동/부주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충동/부주의가 높은 집단은 패배감이 낮을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속박감을 경험하지만, 패배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충동/부주의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동/부주의가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패배감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변화가 작으며, 이에 따라 자살생각에 대한 변화 폭이 줄어듦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회피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간접효과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가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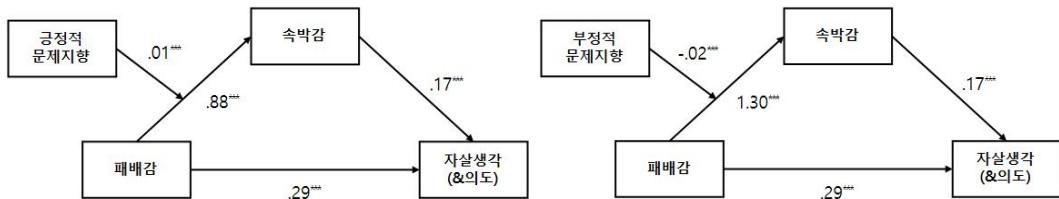


그림 6. 긍정적 문제지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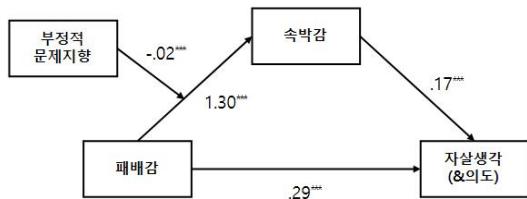


그림 7. 부정적 문제지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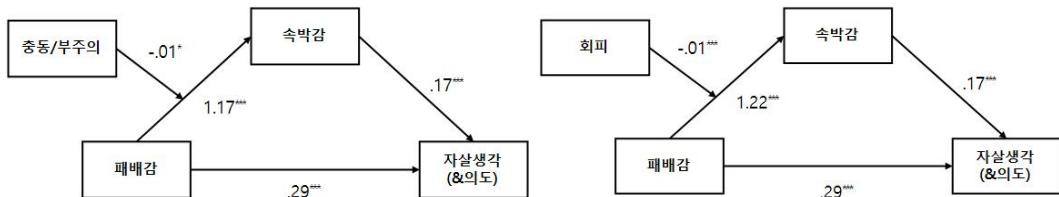


그림 8. 충동/부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래프

그림 9. 회피 스타일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래프

집단은 패배감이 낮을 때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속박감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패배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피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회피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 및 낮은 집단에 비해 패배감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변화 폭 또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도표화한 결과는 그림 6에서 그림 9까지 제시하였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토대로 국내 20대 청년들의 패배감이 속박감을 거쳐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배감이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사회적 문제해결의 다양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조절된 매개효과의 전제 조건(Muller et al., 2005)에 따라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다섯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패배감과 속박감의 경로에서 다섯 가지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패배감과 속박감, 자살생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 각각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에서 조절변인으로 검증된 사회적 문제해결을 대처방식에 따라 다섯 개의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IMV를 구체화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속박감이 패배감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패배감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속박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패배감이 자살생각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박시온, 배성만, 2023; Höller et al., 2022)와 유사한 결과이며, 패배감이 자살생각으로 가는 직접효과와 패배감이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으로 가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결과(박정은, 권해수, 2020; 이유현 외, 2022)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그로 인해 좌절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패배감은 실패한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느끼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까지 동반되지 않더라도 패배감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패배감은 상황에 대한 평가로 발생하며, 속박감은 패배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므로(Taylor et al., 2011)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패배상황과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다뤄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살과 관련된 치료적 개입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패배감을 다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담 장면에서는 청년들이 패배 경험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치료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의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문제나 취업난 등 삶의 과업 일부에서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이는 인생 자체의 실패가 아니며, 더 나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과정 중 일부로 여길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패배감에 대한 수용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경험에 대해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문제해결 중 긍정적 문제지향이 속박감을 촉진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배감이 낮은 경우에는 긍정적 문제지향이 속박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패배감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문제지향이 속박감을 더 많이 높여주는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배감과 속박감, 긍정적 문제지향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된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긍정적 문제지향과 유사한 개념들을 통해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나 긍정적 정신건강, 심리적 웰빙이 속박감 수준을 완화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달리 한다(O'Connor & Williams, 2014; Pollak et al., 2021; Teismann & Brailovskaia, 2020). 이는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를 중재하는 개인적 조절변인인 긍정적 문제지향과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나 긍정적 정신건강, 심리적 웰빙은 속박감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하는 동기적 변인이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문제지향을 측정하는 문항을 바탕으로 속박감과의 관계를 예측하자면, 먼저 낮은 패배감, 즉 가벼운 수준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패배감, 즉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는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낙관적 핵심신념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막막함과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긍정적 문제지향과 패배감 및

속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다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이 속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패배감이 낮아도 더 쉽게 속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이 IMV에 근거하여 속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O'Connor & Portzky, 2018; Taylor et al., 2011; Wang et al., 2023). 하지만 패배감이 높아지면 부정적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준에 따른 속박감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문제해결은 패배감 수준이 낮을 때에만 속박감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패배감을 느낄 때는 어떠한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하던지 속박감은 패배감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앞에서 살펴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문제지향의 경우, 패배감이 낮을 때 긍정적 문제지향의 수준이 높으면 속박감을 낮추지만, 패배감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문제지향이 오히려 속박감을 강화시켜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패배경험 앞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더 큰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살이라는 파국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위험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삶의 과업

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패배감을 경험하게 될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또한, 부정적 문제해결(부정적 문제지향, 충동/부주의, 회피 스타일)의 경우, 부정적 문제해결의 수준이 높을수록 패배감이 낮더라도 높은 속박감을 느끼면서 패배감에 따른 속박감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자살생각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 졸업이나 취업 등 여러 새로운 과업을 해나갈 청년들이 어떤 부적응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상담장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방식을 적응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정에서 개입한다면 청년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효능감을 높이고 속박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획득 또는 결여가 가벼운 실패 경험에 대해서는 속박감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큰 패배감에 사로잡히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패배감은 개인의 부정적인 인지평가로 인해 발생하므로 (Gilbert et al., 2002) 청년이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경험을 소화하도록 돋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실패 경험의 심각도 평가 및 문제해결 능력 개선을 통해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내담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함으로

써 실패 경험을 해결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응적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하도록 돋는 해결중심적 접근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실패 경험에 대해서는 마음챙김과 같은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해 실패 경험 자체를 건강하게 수용하고 과업의 실패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지각하지 않도록 돋는 치료적 개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음챙김 접근은 지금이 순간에 집중하며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는 접근으로(Kabat-Zinn, 2003), 자살 고위험군의 주요 특징인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안, 부정적 자기평가 등과 반대되는 특징을 보인다(유성경 외, 2020; Singhani, 2020). 마음챙김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면 패배감을 감소시켜 자살생각으로의 발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자면, 20대 청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이 경험하는 패배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패배감의 수준에 따라 개입의 방향과 전략이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패배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방향의 개입이 필요하고, 패배감의 수준이 높을 때는 패배경험을 건강하게 수용하도록 돋는 인지행동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 해결기술을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20대 청년에게 통합적 동기-의지모형의 동기 단계를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

하였다. 즉,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자살이론을 통합하여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설명하는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모형을 적용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들은 20대 청년의 자살예방 및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에서 O'Connor가 선행적으로 제시한 조절변수 중 사회적 문제해결이 해결방식에 따라 20대 청년의 자살 문제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적응적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불안, 우울, 공격성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며(Baker & Williams, 2001; Elliott & Shewchuck, 2003; Spotts et al., 2001), 더 나아가 자해와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 2004; D'Zurila et al., 1998; Mcmurran et al., 2001). 하지만 사회적 문제해결의 다양한 하위요인이 개별적으로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에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하위요인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의 각 하위요인이 조절변수로써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세분화하여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모형을 일부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문제해결전략의 수준이 패배감과 속박감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자살의 위험성을 조절함을 밝힘으로써 자살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벼운 수준의 패배감을 경험할 경우 실패 상황의 직접

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전략을 다루는 상담이 도움이 되며, 높은 수준의 패배감을 지니고 있다면 패배경험에 대한 역기능적인 지각을 다룸으로써 속박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돋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에서 제시된 전체 경로 중 일부만을 검증하였다. O'Connor는 동기 전 단계, 동기 단계, 의지 단계의 총 3단계로 자살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각 단계에서의 조절변수들 또한 함께 안내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단계를 검증할 만큼의 사례 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동기 단계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이때, 동기 단계의 모든 조절변수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대 청년에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의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단계에서 제시되는 조절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20대 청년의 자살을 예방 및 개입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 보고형 설문을 통한 획단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반응 편향 및 왜곡 등 측정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또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모형을 재확인함으로써 각 단계의 시간적 순서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의 여성 비율이 다소 높고, 20대 후반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화에 대한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균등하게 추출하여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결과가 20대 청년에만 나타나는 특징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해결이 패배감과 속박감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두 요인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패배감과 속박감의 동질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패배감과 속박감을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패배감과 속박감이 동일한 인지적 기제에서 추출되었다는 점에서 두 요인을 단일요인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ohnson et al., 2008; Rooke & Birchwood, 1998). 그와 반대로 패배감과 속박감을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속박감은 패배감이 선행되고, 이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평가에 대한 결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두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Rasmussen et al., 2010; Taylor et al., 2009).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패배감과 속박감이 실재적으로 구분되는 요인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강지원, 장숙랑, 김해송, 김민경, 김현수, 주지영, 이경영, 김유경 (2013).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

의 탐색연구. *보건사회연구*, 43(1), 69-84.

권미경, 김지선, 남상인 (2019). 한국 성인 자살 연구의 동향 분석. *Crisisology*, 15(9), 17-37.

김명미, 손준호 (2019). 대학생의 생활습관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월니스학회지*, 14(3), 253-262.

김설환, 손정락 (2018).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4), 379-386.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7.

김혜지, 배성우 (2017). 대학생의 자살생각 경로 분석: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1-23.

김홍석, 최이순, 장효강 (2013). 단축형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611-625.

박경 (2004). 청소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2(2), 96-106.

박수진, 김종남 (2018). 초기 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의 매개효과 및 삶의 이유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877-908.

박시온, 배성만 (2023). 패배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의 매개역할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6), 1165-1182.

박은미, 정태연 (2017). 청년층 자살사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2017 고용패널 학술대회.

박은아 (2019). 경제적 고통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질의 조절효과 중심. *인문사회* 21, 10(1), 17-32.

박정은, 권해수 (2020). 대학생의 패배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을 통한 좌절된 소속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O'Connor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8(2), 305-327.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3 자살예방백서. https://www.kfsp.or.kr/web/board/15/?pMENU_NO=249

유성경, 최보윤, 강유선 (2020). 반추 및 반성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 및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1(2), 517-545.

이덕희, 김성현, 정다송, 이동훈 (2023). 자살사고 속성척도(Suicidal Ideation Attributes Scale [SIDA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1), 1-23.

이상은, 이은진, 함옥경 (2021). 자살 태도, 삶의 인식,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7), 305-315.

이소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5). 한국판 패배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및 패배감과 속박감의 요인구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17-36.

이유현, 정소희, 최웅용 (2018).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125-147.

이유현, 황혜영, 손영미 (2022). 대학생의 패배감, 속박감,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정서도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O'Connor의 통합

적 동기-의지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3), 103-124.

이윤진, 유성은 (2020). 노년기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변인의 조절효과: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비교. *인지 행동치료*, 20(4), 423-443.

이종선, 조현주 (2012).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239-259.

이지원, 송보라, 이주연, 이지향, 이기학 (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진로적응과업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1073-1108.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이혜선, 육성필, 배진화, 안창일 (2008). 자살관련 행동의 명명과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331-349.

전소담, 이진혁, 송인한 (2020). 고용안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4), 553-563.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정용, 구훈정 (2019).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취약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1), 141-159.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통계청 (2023).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bid=218&act=view&list_no=427216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Baker, S. R., & Williams, K. (2001). Short communication: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appraisals, work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ale firefighters.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17(4), 219-229.

Berman, A. L., Jobes, D. A., & Silverman, M. M. (2006).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nner, R. L., & Rich, A. R. (1988). Negative life stress, social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and hopelessness: Implications for suicide resear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549-556.

Cole, E. C., Protinsky, H. O., & Cross, L. H. (1992). An investiga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7(108), 813-818.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1), 107-126.

D'Zurilla, T. J., Nezu, A. M. & Maydeu-Olivares, A. (1999). *Manual for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Multi-Health System.

Davey, G. C., Jubb, M., & Cameron, C. (1996). Catastrophic worrying as a function of changes in problem-solving confid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333-344.

Dhingra, K., Boduszek, D., & O'Connor, R. C. (2016). A structural test of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Psychiatry Research*, 239, 169-178.

Dugas, M. J., Gagnon, F., Ladouceur, R., & Freeston, M. H. (1998).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 preliminary test of a conceptual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2), 215-226.

Elliott, T. R., & Shewchuk, R. M. (2003).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distress among family members assuming a caregiving rol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Pt 2), 149-163.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4.

Gibbs, L. M., Dombrovski, A. Y., Morse, J., Siegle, G. J., Houck, P. R., & Szanto, K. (2009). When the solution is part of the problem: Problem solving in elderly suicide attemp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12), 1396-1404.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3), 585-598.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1-3), 141-151.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Höller, I., Rath, D., Teismann, T., Glaesmer, H., Lucht, L., Paashaus, L., Schönfelder, A., Juckel, J., & Forkmann, T. (2022). Defeat,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Twelve month trajectori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52(1), 69-82.

Jahoda, M. (1953).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health. *Social Casework*, 34(8), 349-354.

Jahoda, M.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Basic Books.

Johnson, J., Gooding, P., & Tarrier, N. (2008). Suicide risk in schizophrenia: Explanatory models and clinical implication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 55-77.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Joiner Jr., T. E., Van Orden, K. A., Witte, T. K., Selby, E. A., Ribeiro, J. D., Lewis, R., & Rudd, M. D.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3), 634.

Kabat-Zinn, J. (2003).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in context: past, present, and future. *Clin Psychology Sci Pract* 10, 144-156.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 Schutte, N. S. (2007). The efficacy of problem solving therapy in reduc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1), 46-57.

McMurran, M., Fyffe, S., McCarthy, L., Duggan, C., & Latham, A. (2001). 'Stop & Think!': social problem solving therapy with personality disordered offender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1(4), 273-285.

Miranda, R., Tsypes, A., Gallagher, M., & Rajappa, K. (2013). Rumination and hopelessnes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emotion dysregulation and suicidal ide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4), 786-795.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O'Connor, R. C. (2011).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Editorial].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2(6), 295-298.

O'Connor, R. C., & Kirtley, O. J. (2018).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3(1754), 20170268.

O'Connor, T. G., Matias, C., Futh, A., Tantam, G., & Scott, S. (2013). Social learning theory parenting intervention promotes attachment-based caregiving in young children: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2(3), 358-370.

O'Connor, R. C., & Portzky, 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apment and suicidal behavior through the lens of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2, 12-17.

O'Connor, R. C., Smyth, R., Ferguson, E., Ryan, C., & Williams, J. M. G. (2013). Psychological processes and repeat suicidal behavior: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1(6), 1137-1143.

O'Connor, R. C., & Williams, J. M. 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future thinking, brooding, defeat and entrap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29-34.

Panagioti, M., Gooding, P. A., & Tarrier, N. (2012). Hopelessness, defeat, and entrapment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ir association with suicidal behavior and severity of depress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0(8), 676-683.

Pereira, E. J., Kroner, D. G., Holden, R. R. & Flamenbaum, R. (2010). Testing Shneidman's model of suicidality in incarcerated offenders and in undergradu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912-217.

Pollak, O. H., Guzmán, E. M., Shin, K. E., & Cha, C. B. (2021). Defeat, entrapment, and positive future thinking: Examining key theoretical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2, 590388.

Rasmussen, S., Fraser, L., Gotz, M., MacHale, S., Mackie, R., Masterton, G., McConachie, S., & O'Connor, R. C. (2010). Elaborating the Cry of Pain model of suicidality: Testing a psychological model in a sample of first-time and repeat self-harm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15-30.

Reinecke, M. A., DuBois, D. L., & Schultz, T. M. (2001). Social problem solving, mood, and suicidality among inpatient adolesc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743-756.

Reynolds, W. M. (1991).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2), 289-307.

Rooke, O., & Birchwood, M. (1998).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s appraisals of schizophrenic illness: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259-268.

Singhani, S. (2020). Mindfulness in Adolescents: Its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Leading to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Spotts, E. L., Neiderhiser, J. M., Hetherington, E. M., & Reiss, D. (2001). The relation between observational measure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familial anti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4), 351-374.

Taylor, P. J., Gooding, P., Wood, A. M., & Tarrier, N. (2011).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in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Psychological Bulletin*, 137(3), 391-420.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Johnson, J., & Tarrier, N. (2009). Are defeat and entrapment best defined as a single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795-797.

Teismann, T., & Brailovskaia, J. (2020). Entrapment,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suicide ideation: A moderation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7(1), 34-41.

Townsend, E., Hawton, K., Altman, D. G., Arensman, E., Gunnell, D., Hazell, P., House, A., & Van Heeringen, K. (2001). The efficacy of problem-solving treatments after deliberate self-harm: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ith respect to depression, hopelessness and improvement in problems. *Psychological Medicine*, 31(6), 979-988.

Van Spijken, B. A., Batterham, P. J., Calear, A. L., Farrer, L., Christensen, H., Reynolds, J., & Kerkhof, A. J. (2014). The suicidal ideation attributes scale (SIDAS): Community-based validation study of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4(4), 408-419.

Wang, C., Keilp, J. G., Galfalvy, H., Bridge, J. A., Sheftall, A. H., & Szanto, K. (2023). Entrapment and social problem-solving in suicidal behavior across the adult lifespa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29, 176-183.

Williams, J. M. G. & Pollock, L.R. (2001). *The psychology of suicidal behavior*. In K. Hawton & K. van Heeringen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원고 접수일 : 2024. 07.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9. 26

게재 결정일 : 2024. 10. 29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Defeat, Sense of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People:
Focusing on O'Connor's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Hyoeun Park¹⁾ Dong Hun Lee²⁾

¹⁾Master's Degree,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problem solving influences the pathway from a sense of defeat to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A total of 828 young people in Korea were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at and suicidal idea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entrapm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at and entrapment was moderated by social problem solving (PPO, NPO, ICS, AS) with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f positive problem orientation,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impulsivity/negligence, and avoidance style. Negative social problem solving (NPO, ICS, AS) had a direct effect on entrapment. Third, social problem solving (PPO, NPO, ICS, AS) influenced the pathway from defeat to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confirming its moderated mediating effect. Finall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its significanc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Young People, Sense of Defeat, Sense of Entrapment, Social Problem Solving